

“온가족 함께 어울리며 부처님 가르침 배워요”

비구니회관 법통사 ‘일요가족법회’ 표정



◇고시환씨 가족에게 비구니회관은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쉼터이자 배움터이다. 사진=임민수 기자

“누나, 나가서 놀자” “숫! 법당서 떠들면 안돼”

나란히 반야심경 독경 가족모습 정 ‘가득’

“누나, 나 삼배했는데 밖에 나가면 안돼?”
 “조금만 더 앉아 있자. 그리고 법당에서는 떠드는 거 아니겠지?”
 삼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자고 조르는 동생 룡형(7)이를 누나 연경(10)이가 조용히 타이른다. 20여 분 동안

영당이를 들춰거리던 룡형이는 결국 누나의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 한참을 뛰어놀고 나서야 다시 법당으로 돌아왔다.
 지난 9월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 법통사 법당에는 부부가

50여 명이 모여들었다. 그 중에서도 고시환(39) 씨 가족은 유난히 눈에 띈다. 고 씨와 부인 김은정(37) 씨, 딸 연경이와 아들 룡형이가 나란히 앉아 절을 하고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모습이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전에 다른 절에 다녔었는데 집 가까운 곳에 비구니회관이 생기고 나서 이곳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 부담 없이 올 수 있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찰과 법회 분위기를 접할 수 있어 좋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에는 공양도 정말 맛있어요”

고시환 씨 가족은 주말에만 법통사를 찾는 것은 아니다. 비구니 회관이 마련한 문화강좌를 온 가족이 다 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부인 김 씨는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을, 연경이는 서울 개운사 관선무 원장인 광원 스님이 진행하는 ‘관선무’ 강의를 듣는다.

김 씨는 “평소 사찰음식을 배우고 싶었는데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한다. 어떻게 딸 아이가 관선무를 배우냐는 물음에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관선무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고 해서 큰 아이한테 배워볼 것을 권했다”며 “아들도 조금 더 자라면 배우게 해볼 생각”이라고 한다.

전국비구니회관 법통사가 불자들을 위한 마련한 문화교양강좌는 지난 9월 23일 니르바나 실내악단 강령진 단장의 ‘니르바나 음악교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찰음식 강좌는 33명이, 관선무는 30여 명이 신청한 상태이지만 아직 시작 단계이고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련장 문을 열어 놓아 언제든지 찾아가 수련도 할 수 있고,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일요법회가 진행된다. 법회가 끝나면 경기민요 전수자 김수연 씨가 ‘가족이 함께 배우는 민요교실’을 30여 분간 진행한다. 이밖에도 어린이를 위한 ‘스님께 배우는 어린이 한자교실’과 ‘영어 이야기 교실’, ‘경전이야기 교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 스님은 “비구니회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며 “앞으로 사찰과 지역주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02)733-5467

여수령 기자 snopy@buddhania.com

소설가 남지성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생을 마감하기 전의 선택

자신의 나이를 예순여덟 살이라고 밝힌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0대 초반에 건설업에 손을 대 성공한 편에 속했던 그 분은 아내는 물론 2남 2녀의 자녀들한테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르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4남매 모두 결혼을 시켰는데 큰 아들은 당뇨가 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출애미에 외팔이 자녀와 결혼해 처가에서 살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큰딸은 미국에 이민 갔고 작은 딸은 남편과 이혼하고 딸 하나를 데리고 혼자 살고 있다 했습니다. 평범하다면 평범한 우리 이웃의 가족들 모습이지요.

이런 평범한 그의 가정이 파란으로 치달은 것은 IMF 직후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은 아파트는 물론 자신이 보증을 선 아파트까지 연세부도를 내 살고 있던 집까지 채권자들에게 빼앗기고 지금은 연립주택 지하방에 세를 살고 있다 했습니다. 거기에도 설상가상으로 당뇨를 앓고 있는 큰아들과,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는 작은 딸의 돈까지 모두 날렸기 때문에 두 자녀의 생활까지 속수무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을 지을 때 제가 도움을 드렸더니 스님이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계산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절에 가 있으면서 허드렛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부처님 도량에서 생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아내 때문에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죽어도 절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니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늙고 병든 아내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 속을 썩이다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의논을 드려보려고요.”

그 분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한 후 다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리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생을 살아봤는데 허망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건진 것이 있다면 부처님 법을 안 것이지만

요. 늦기 했지만 지금이라도 부처님 가까이 가서 불법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소원인데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큰아들은 어찌 됐던 가족이 있으니까 그런대로 살아갈 것이고 작은 딸 역시 제가 흔



‘공부’ 하는 것보다 더 급한일 있을까...

큰아들과 작은 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아버지 회사에 맡겨 놓고 이자로 생활을 해 왔다고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과 혼자된 딸을 측은하게 여긴 아버지는 대외적으로 명분을 만들어 놓고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대준 것입니다.

그 후 그들 가족이 겪었을 고통과 갈등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지요. 평소 건강하지 못한 남편에 대해 불만이 많던 큰며느리는 불손하기가 이를 데 없이 되었고, 생활기반을 잃은 작은 딸 역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비교적 소상히 설명한 그 분은 저를 찾아 온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생에 대해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죽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자살이라고 하니 가장 무거운 죄를 짓고 생을 마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법(佛法)을 모른다면 또 모르겠으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살고 있는데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이 절에 와 있으라고 권합니다.”

자 살기로 마음먹고 남편과 헤어졌으니 제 힘으로 살아가겠지요. 요는 집사람인데 집사람을 두고 혼자 절로 들어가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도리를 지키면서 지금처럼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길일까요?”

그분의 긴 설명을 듣고 있는 제 머리 속에는 부처님의 유성불화가 떠올랐습니다. 유성불화가 역시 부처님이 우리에게 삶의 길을 제시한 하나의 해답이라는 생각과 함께요.

부처님 도량에서 불법을 공부하면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시다면 절로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시는 모습을 보고 부인도 나중에 따라 들어 가실지도 모르잖나라는 말을 덧붙여서요.

그렇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그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을 정리하는 시점에 이런 사람에게 공부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화급한 일은 없을 터니 말입니다.

化緣 (02)704-3577

손때 묻은 책을 선물해 보세요



독서에 관한 세 바 보가 있다. 첫째, 남의 책 빌려 읽는 사람들. 둘째, 남에게 책 빌려 주는 사람들. 셋째, 빌린 책 다시 돌려주는 사람들. 이른바 독서의 삼치(三痴)라 하여, 책을 귀하게 여기던 지난 시절의 이야기이다. 요즘은 이런 바보들이 없다. 있다 하더라도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 대어 책방도 있고, 비싼 책은 복사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종이 귀한 줄도, 책 귀한 줄도 모르는 경박한 시대를 살고 있다. 여기, 바보도 되지 않고 경박한 사

람도 되지 않는 한 방법이 있다. 이미 읽은 책을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하는 거다. 비좁은 책꽂이에 숨통도 터 주고, 종이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야 하는 일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어놓은 밑줄을 보며 ‘이 사람은 왜 이 대목에서 밑줄을 그었을까?’ 혹은 ‘맛아, 어쩔 내 생각과 이렇게 똑같을까?’ 하면서 공감할 때, 어찌 기쁘지 않을 것인가. 손때 묻은 책을 선물해 보자. 인간 관계는 훨씬 따뜻해질 것이다.

- ◆ 무료 의료상담=송파노인복지관은 11일 오전 10~12시 복지관 2층 치과 진료실에서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11, 15, 17, 22, 24, 29, 31일 오전 10~12시 복지관 2층 치과 진료실에서 무료 수지침 진료가 열린다. (02)2203-9400
- ◆ 노인잔치=도봉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 2년을 기념, 10, 11일 양일간 오전 10~오후 4시까지 서울 성문동 복지관에서 ‘도봉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영화상영회, 일일차집, 사진전시회, 문화초청공연, 노래자랑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이다. (02)993-9700
- ◆ 호스피스 교육=정토마을(원장



- 행복한황혼
- 농행이 21~23일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 야산병원 동관 6층 강당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한다. 김수지 이화여대 간호학과 교수, 김효순 아산병원 복지팀장, 송명숙 아산병원 호스피스 등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강좌가 마련됐다. 참가비는 4만원. (02)3010-7900.
- ◆ 자양문화축제=서울 광진구 자양사회복지관은 18, 19 양일간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제2회 자양문화축제’를 진행한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가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아동인형극, 마술공연, 수화공연 등이 마련된다. (02)458-1664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향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육임은 사람을 밝히는 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五術之中帝王」이요, 「神示」라고도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배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개운 될 것인지, 이사하면 언제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 男二女 관계인지 二男一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뱉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말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한도 시식 국 부작)을 행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몇날 몇시에 태어날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잡힐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찾을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은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는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 무엇이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볼 것인지

등 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량 복사본 판매행위 해월에 도움을 주신 전국 활인 천역자 제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 효사 배상 -

사주나, 기론이나, 주역이나, 학박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그날치 한장의 시간만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말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입시 선거 구체 취직 승진 때에 입신 가솔 동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책은 한마디로 열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것입니다.

바인더차트 每一式

■ 활인전문천역자용 (부록·실경비디오 포함)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W1,500,000 (휴대용)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W1,300,000 (좌정용)

- 효사 육임강의록 W300,000
- 효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 28개) W900,000

● 강의신청 「육임학당효사숙」 02-998-8683

■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서울강남지사 02-2203-4805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